

환경교육운동의 아시아 네트워크를 구축하자

()

seojw@kfem.or.kr

1. 이제는 환경교육운동이다

21세기를 목전에 둔 1990년대는 과히 환경문제의 시대라고 할 만큼 각종 환경관련 국제회의가 봇물이 터지듯 앞 다투어 개최되었고 21세기가 되어서는 환경의 세기라는 말에 걸맞게 더욱 빈번하게 개최되고 있다. 1992년 리우에서 개최된 UN환경개발회의를 필두로 96년의 이스탄불 UN정주회의, 브리스번 람사협약 제 6차 당사국회의 그리고 97년 6월의 UN환경 특별 총회, 12월 1일부터 10일 까지 일본의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 3차 당사국 총회,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리우+10 회의 등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참가하는 회의 뿐 아니라 지역별 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회의 등도 이루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지구환경문제, 특히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12월 3일부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총회에서는 IPCC가 내놓은 제 4차보고서를 근거로 교토체제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여사가 침묵의 봄(The Silent Spring)에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경고한 이후 환경문제가 지구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72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UN인간환경회의(UNCHE)가 그 시초일 것이다. 스톡홀름회의에서는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라는 슬로건 하에 인간환경선언(Declaration on the Human Environment), 일명 스톡홀름선언을 채택하였다. 같은 해에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로마클럽보고서 <성장의 한계>가 발표되어 자원고갈과 환경파괴에 따른 지구의 위기를 경고하여 인류의 경각심을 일깨웠고, 20년 후 이 보고서의 속편으로 출판된 <지구의 위기>에서 현재의 오염추세가 계속될 경우 인류는 다음 세기 중에 지구의 파멸에 봉착하게 되리라고 경고하였다. 지구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전 세계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UN의 유엔환경계획기구(UNEP)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대응전략이 연구되어 왔다. 1983년 12월에 만들어진 세계 환경개발위원회(WCED)는 4년간의 연구결과 우리의 공동미래

(Our Common Future 일명 브룬트란트 보고서)라는 지구환경전략 보고서를 제출하여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을 내놓았고, 1987년 10월 UN총회에서 이에 대한 실현체계를 구축하자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UN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우리의 공동미래>에 대한 실천전략이 수립되었는데 향후 지구환경질서의 기본원칙이 될 <리우선언>과 그 실천계획인 <의제21(Agenda21)>이 채택되었으며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되었다. 아무튼 1980년대 말 냉전체제가 붕괴하면서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지구환경문제가 세계질서의 재편에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으며 21세기가 되어서 환경의 세기라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이는 지구환경문제를 현 추세대로 방치할 경우 인류의 생존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받는다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서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다각적인 방법으로 모색되고 있다.

또한 2005년에는 케냐의 왕가리 마타이 여사, 2007년에는 IPCC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등 환경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으며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은 이제 특정지역,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환경문제의 근본적 해결방법과 환경보전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 즉 새로운 생활양식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환경교육이다. 환경교육은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함과 동시에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인간과 자연의 상호의존관계를 적절히 설명하여 자연을 정복의 대상이 아닌 공존해야 할 공동체적 대상으로 인식케 한다.

1992년 UN환경개발회의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인 아젠다21(Agenda21)에서도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으며 나아가 유엔은 2005년에 향후 10년을 지속가능발전교육 기간으로 선언하였다.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인 환경문제의 해결은 새로운 생활양식으로 인류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환경교육운동을 활발히 하는 것이다.

2. 왜 아시아 환경교육운동은 연대해야 하는가?

2005년은 신자유주의의 전도사 WTO가 출발한지 10주년이었으며 동시에 UN에서 추진하는 MDG(Millennium Development Goals)—2015년까지 UN에 속한 191개

국이 달성하도록 한 8가지 주요 목표들 1) 빈곤과 기아 2) 교육 3) 성평등과 여성 4) 5세 이하 아동사망률 감소 5) 모성건강권 증진 6) HIV/AIDs, 말라리아 퇴치 7) 지속가능한 환경 8) 개발을 위한 전 지구적인 파트너십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해였다. 동시에 시애틀 WTO 총회를 무산시킨 이후에 세계 시민사회는 라틴아메리카를 중심으로 세계사회포럼이 활성화되면서 일정한 사회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제사회운동의 연대가 한층 강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지난 인도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이후 아시아에서도 사회운동의 연대가 다양하게 활성화되고 있다. 이는 동북아, 동남아 그리고 서남아시아라는 Sub-regional 차원의 연대를 넘어서서 아시아 차원의 다양한 연대(부분단위의 연대뿐만 아니라 인권과 신자유주의 그리고 평화, 여성, 환경, 아시아 대중 운동의 다양한 이슈 등)에 대한 각 계층의 공동의 담론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한국 시민사회 역시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근년에 들어 미군주둔기지 문제 등을 포함하여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전쟁 반대에 참여하기도 하고, 특히 1997년 IMF 이후 한국시민사회는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아시아지역단위의 연대 틀에 대해 다양한 논의에 참여하기도 하고 공동 연대투쟁에 나서기도 해왔다.

그런 가운데 국제사회연대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육성과 휴먼 네트워크를 위한 아시아센터가 지난 2002년 초 필리핀에 세워지면서 구체적인 연대를 위한 실천과정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구에서는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라는 자연 속에서 순환하지 못하는 사회체제와 생활양식이 만들어졌다. 따라서 지구온난화나 수자원을 비롯한 각종 자원고갈, 산림파괴 등 현재의 지구환경문제는 서구 산업국가의 역사적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체제와 생활양식에서는 1인당 소득이 1만 불 정도가 되면 건강과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산업화와 경제개발로 인한 악영향이 성장제일주의에 가려져 있다가 점차 환경과 건강과의 관계나 무차별적인 환경파괴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깨달음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때 쯤에 마라톤이 사회적 붐을 이루고 다양한 환경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하여 공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에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의 지구환경문제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1만 불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는 기후변화나 오존층 파괴, 사막화, 열대우림 파괴와 같은 지구환경문제는 이미 스스로 회복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버렸다.는 점에서 모든 국가가 시급하게 해결을 위하여 노력해야만 한다. 특히 이런 지구환경문제는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저개발 국가에게 더욱 큰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중국의 사막화와 얼마 전 발생한 방글라데시의 사이클론은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더구나 저개발 국가의 경제개발과 빈곤퇴치의 과정에서 또다시 심각한 환경파괴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 1980년대 누적 채무가 많은 저개발 국가일수록 산림파괴가 심하다는 보고는 이를 뒷받침한다. 그런데 아시아는 전 세계 인구의 60% 이상(38억 1700만 명)을 차지하고 있고 경제규모도(GDP 기준으로 일본 2위, 중국 4위, 한국 11위, 인도 12위, 대만 21위, 인도네시아 26위 등) 큰데다 경제성장 속도가 빨라서 환경파괴가 대규모로,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아시아의 환경파괴 뒤에 외국의 기업과 국가가 있다는 사실이다. 파푸아뉴기니나 미얀마의 자원 개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팜 경작, 핵발전소 건설 계획, 아시아 은행이나 세계은행에서 벌이는 댐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 등 일본이나 한국정부 등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기업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들이 심각한 환경파괴를 수반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막아내는 것은 그 국가의 주민만의 힘으로는 어렵다. 일상적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아시아지역의 연대와 공동투쟁으로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환경파괴를 막아내기 위한 환경교육 활동가들의 연대가 절실하다. 더구나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는 서구 산업국가의 침략을 받아 20세기 중반 이후에서야 민족국가가 형성되고 뒤늦게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역사적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상생과 나눔, 화해 등 아시아적 가치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고 지정학적으로도 가까운 위치에 있기에 연대를 쉽게 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다.

환경분야에서도 아시아에서는 그동안 이미 많은 교류들이 있어왔다. 반핵아시아포럼, 강네트워크, 멸종위기 조류보호, 등 체계적이고 일상적인 공동사업수행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렇지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환경교육분야에서는 단순한 정보교류나 인적교류, 일회적인 공동사업에 머무르고 있다. 유럽이나 아프리카, 남북아메리카에서 활발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국제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우와 대조적이다.

3.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아시아의 환경교육 단체들의 연대의 수준이 초기단계임을 생각한다면 우선 정보나 활동가 등 다양한 교류를 활발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환경교육의 연대는 다음의 목표에 따라 공동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1) 활동목표

① 환경교육단체들의 아시아 네트워크를 통하여 한국 시민사회운동의 아시아적 토대를 구축하는데 일조하고 상호 정보를 교류하는 네트워크를 일상화함으로써 환경교육의 사고와 폭을 넓혀서 질적인 발전에 기여한다

② 환경교육 활동가 및 단체의 교육 훈련프로그램을 통한 활동가의 인력 계발을 높이고 각 분야별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구체적인 국제연대 실천 활동을 높인다.

③ 나눔과 상생의 아시아적 가치를 통한 아시아 환경교육 네트워크 발전을 모색하고 전 지구적 환경문제 등에 대한 공동의 대응을 모색한다.

2) 주요활동

① Information and Networking(Base Construction)

아시아 각국의 환경교육활동을 서로 공유하며 세계적인 흐름을 소개한다. 이를 위해서 정기적인 워크샵이나 공동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② Capability Building (Reflection and Training)

훈련가, 조직가, 활동가 등의 양성을 위한 공동의 교육 훈련 및 수련 활동을 수행한다.

③ Advocacy (Issue Based Network Activity)

아시아의 구체적인 환경이슈를 중심으로 단체 간의 연대 활동을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토록 한다.

④ Survey and Research

공동의 연구나 조사를 통하여 아시아 지역의 상황에 맞는 공동 교재, 프로그램 등의 개발한다.

To build up Asian Network of Environmental Education Movement

Seo Joowon

Chief, Korea Environmental Education Center

1. Time for environmental education movement

1990s can be labeled as the era of environmental issues as international conferences on environment started to spring up drastically. With the advent of the 21st century, environmental conferences have been held a lot, befitting the phrase of 'environmental century'. Since UNCE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ountable meetings have been held like UN Habitat II in Istanbul in 1996, The 6th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f Ramsar Convention in Brisbane, Australia, UN Special Assembly on Environment in June 1997, The 3rd General Assembly of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held in Kyoto, Japan from December 1st to 10th, Rio +10 held in Johannesburg in 2002. Almost all of countries participate in environment-related meetings. Not only to that, regional conference and municipal-level meetings are held as well. In the midst of climate accidents driven by global warming happening, international community pays more and more attention to green issues, particularly global warming. In this context,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 which will be held on December 3rd will serve as the venue where global representative will talk about the efficient way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 based on 'the Fourth Report' presented by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Since Rachel Carson warned the seriousness of environmental pollution in "The Silent Spring", environmental issues started to be addressed in earnest in UNCHE(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held in Stockholm, Sweden, in 1972. In Stockholm, under the slogan of 'Only One Earth', 'Declaration on the Human Environment' (known as Stockholm Declaration) was adopted. In the same year, The Roman Club Report, <The Limit of Growth> dealing with the severeness of environmental pollution was made public,

bringing people to more awareness on resource depletion and global crisis caused by environmental degradation. 20 years later, <The Global crisis>, the sequel to <The Limit of Growth>, warned, "if this trend of pollution should persist, the human society would face the destruction in the next century". Based on the global consensus on the crisis of global environment, UNEP has taken the lead in coming up with collaborative strategies. WCED founded in December 1983, presented a report called 'Our Common Future' known as Brundtland Report advocating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 resolution to realiz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was made in UN General Assembly, in October, 1987. In June, 1992, UNCED was held in Rio de Janeiro, Brazil, where practical strategies for <Our Common Future> was made, and <the Rio Decele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acting as the basic principle of global environmental measures was also adopted. <Agenda 21> and other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nd 'Biodiversity Convention' were adopted in that meeting, too. As Cold War structure was destroyed in late 1980s, environment became the major issue of the global community in 1990s, and none has different view on the fact the 21st century is the century of environment. It's because everyone agrees the idea if we didn't work right now, human survival could be threatened in the future, and multifaceted efforts are being made to resolve global green issues.

In addition, Wangari Muta Maathai of Kenya in 2005 and IPCC in 2007 won Nobel Peace Prizes, making environment global issue. Environmental crisis doesn't know the border, being directly related to human survival.

A basic measure to preserve and protect environment is environmental education as it can make people live in harmony with a nature, meaning make people live according to a new lifestyle. Environmental education helps people to be aware of green issues and to draw counter-measures. Education explains the mutual relation between humans and a nature, and helping people to realize that a nature is not what we tried to conquer but what we try to make harmony with

In 1992, UNCED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education, and Agenda21 (which is a practical plan to resolve green problems) also put emphasis on environmental education. Furthermore, UN declared a 10-year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 program in 2005.

An environmental problem, an urgent issue, can be resolved thanks to education which changes a society where people will acquire a new life style to harmonize with a nature.

2. Why is solidarity needed to Asian Environmental Education Movement?

The year of 2005 was the tenth anniversary of WTO establishment, and full-fledged efforts to realize MDG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started to be made, and MDG (8 major goals promoted by UN 191 member countries) contains 1) poverty and famine 2) education 3) gender equity and women 4) decrease of children mortality below the age of five 5) enhancement of maternal health right 6) elimination of HIV/AIDs and Malaria 7) sustainable environment 8) establishment of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After WTO general assembly was derailed in Seattle, World Civil Society Forum has been revitalized by civil societies, particularly by Latin America, enhancing international solidarity affecting global community.

Additionally, the solidarity movement of social activities have been facilitated after the World Civil Society Forum in India, last year. Activists from every corner of a society are seeing eye to eye on the solidarity movement at the Asian level, going beyond Sub-regional solidarity encompassing Northeast Asia, Southeast Asia and Southwest Asia. Solidarity movement is built up on various issues like human rights, Neo-liberalism, peace, women, and environment as well as partial issues.

To keep up with this trend, Korean civic groups participate in campaigns against Afghanistan war and Iraqi war. Especially, Korean civic groups involved in discussion about Asian-level Solidarity platform and solidarity struggles as one of efforts to respond globalization.

In the meantime, Asian Center aimed at fostering human network which can serve as the basis of international solidarity was established in the Philippines in early 2002, which was a starting point to practice specific solidarity movement.

Western countries went through industrialization, giving rise to social structures and lifestyles which are not in alliance with a nature like mass production, mass consumption, and mass wastes. Therefore, the West should be responsible for global green issues like

global warming, resource depletion including water, forest destruction, and so on. It's known that people seem turn their eyes to the importance of health and environment only after they achieve the era of \$10000 GDP. That is to say, side effects of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are hidden by the growth-oriented policies until people realize 1) the relations between health and environment or 2) the possibility that environmental degradation may make sustainable societies impossible. When social wealth is accumulated for people to realize the importance of health and environment, marathon competition may enjoy social boom and various environmental issues may be highlighted, putting investment to resolve problems of air pollution or water pollution. However, global environment has been so degraded to the point where we don't have time to await every country to accomplish \$10,000 GDP.

Climate change, destruction of ozone layer, desertification, the depredation of rain forests, and other environmental issues are now out of our control. Therefore, every country should pull wisdoms to reverse the pollution trend. Particularly, such issues related to global environment are havocking underdeveloped countries in Asia or Africa. Chinese desertification and Cyclone hitting Bangladesh took thousands of lives. Besides, efforts to achieve economic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 may lead to environmental destruction, making a vicious circle. The vicious circle may be testified by a report, saying 'underdeveloped countries with lots of accumulated debt in 1980s appear to suffer more severe depreciation of forest resources. Asia accounts for more than 60% of global population (3,81700 million) and enjoys big economic scale (based on GDP, Japan ranks the second of economic scale, followed by China (4th), Korea (11th), India (12th), Taiwan (21st), Indonesia (26th)) and the fast growth, meaning environmental destruction is occurring in a massive and severe way. The problem is that such destruction in Asia is driven by foreign corporations and countries. Resource development of Papua New Guinea and Myanmar, palm cultivation of Indonesia and Malaysia, construction plan of nuclear plants, dam construction and various development projects promoted by Asia Bank or World Bank are under way by corporations with the support of Japanese or Korean governments, resulting in severe destruction of environment. Individual efforts alone can't resolve the issues. Solidarity and collaborative struggles based on routine network are essential to resolving the issues. Therefore, the solidarity of

environment education activities is urgent to stop the degradation. Additionally, most Asian countries have some in common: Historically, Asian countries were invaded by western countries, formed nation states in the mid 20th century, and started belated industrialization. Culturally, Asian values like coexistence and reconciliation have been shared. Geographically, Asian countries are located in a short distance, meeting the conditions for solidarity.

In environment issues, Asian countries have had a lot of exchanges and conduct collaborative projects systematically and routinely like No Nuke (Anti-Nuclear) Asia Forum, River Network, and protection of birds in danger of extinction, and so on. However, environmental education is now confined to information exchanges, human exchanges, and fragmented projects, as opposed to Europe, Africa, and North and South America which built up active networks to unfold international activities.

3. What shall we do?

Given that environmental education groups manage to maintain initial solidarity in Asia, information or activists exchanges are needed. However, the solidarity of environmental education in Asia will be needed to implement collective projects according to the following purposes.

1) Activity Goal

① Through Asian network of environmental education institutions, Korean civil society movement will make contributions to enhancing Asian solidarity. By making it routine the network of information exchanges, we can broaden the width and depth of environmental education, contributing to the quantum leap of the education.

② Through educational programs for activist and environment-related institutions, we can develop the ability of activists and we will boost international solidarity activities through specific education programs satisfying the needs of each area.

③ Through Asian values like share and co-existence, we will seek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education network, and seek collaborative measures to

resolve global green issues.

2) Major Activities

① Information and Networking(Base Construction)

We share each country's experience in terms of environmental education and introduce the global trend. To this end, we will have regular workshops or build joint-webpage.

② Capability Building (Reflection and Training)

We provid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to foster activists, trainers, and organizers.

③ Advocacy (Issue Based Network Activity)

We offer information and support the international activities based on specific environmental issues.

④ Survey and Research

We develop text materials and programs suitable to a certain situation in Asia through joint researches or studies.

December 4th, 2007